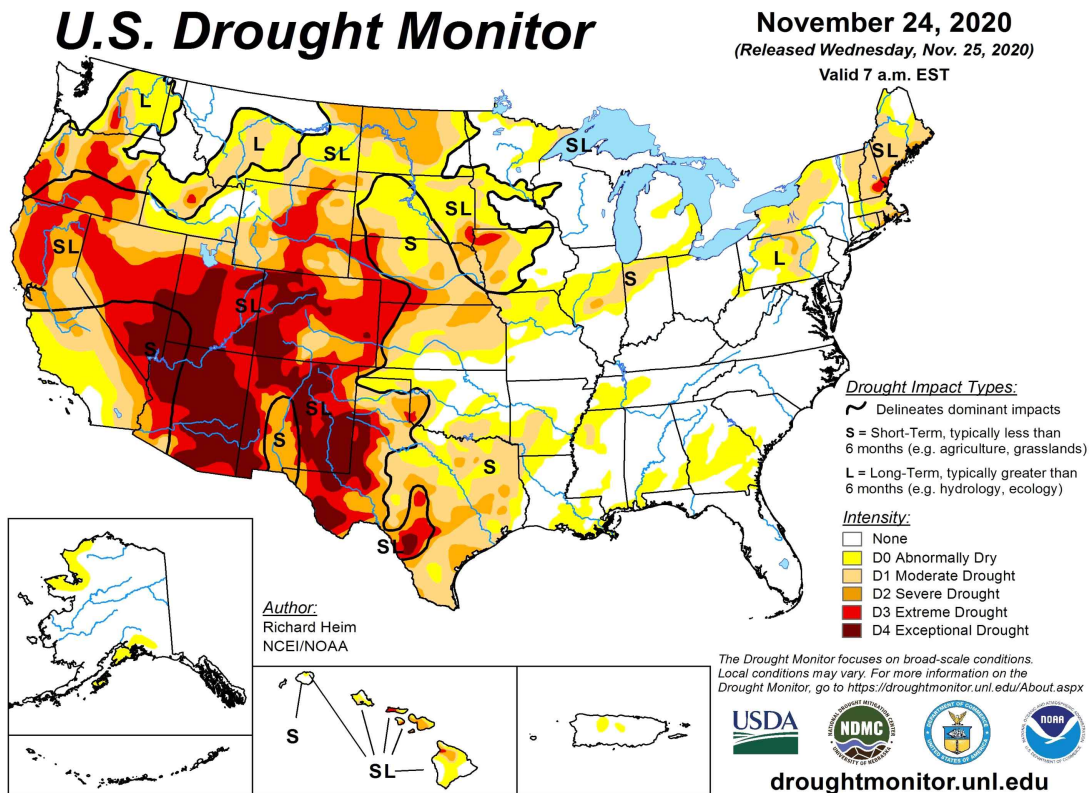


11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7, No. 47)

□ 미국 기후 현황(11/15~11/21)

장기간의 건조한 날씨가 전국의 많은 지구에서 늦가을의 야외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. 하지만 건조함이, 특히 남서부에서 고 평원까지, 이미 확대된 미국 가뭄을 더욱 확대 및 심화시켰다. 미국 가뭄 감시에 따르면 가뭄이 11월 17일 현재 미 대륙의 47.3% - 7년 중 최고치 - 를 뒤덮었다. 남동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체제 하에서 이전에 다수의 열대 기상계 때문에 늦춰졌던 야외 작업 (예: 면화, 땅콩 및 대두 수확)이 가속화되었다. 주 후반에 내린 비가 캔사스와 인근에 다소 유익한 수분을 공급하기는 했지만, 먼 서쪽은 건조가 계속되어 평원 중앙 및 남부 전역에서 일부 겨울 밀에게 악영향을 끼쳤다. 일부 생산자들이 수확 전에 옥수수과 대두의 수분 함량이 더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의 일부에서는 비가 야외 작업을 제한하기도 했다. 그밖에 남서부에는 건조가 계속되고 있었던 반면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에는 유익한 비와 눈이 내렸다. 몇 차례의 소나기가 캘리포니아 중부까지 먼 남쪽으로 확장되었다. 나라의 대부분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는데 남서부에서 평원 일부를 포함하여 미조리 계곡 아래쪽에 있는 많은 곳에서는 주간 평균값이 평년보다 최소 10° F 이상 높았다. 대체로 미국 동부와 북부에 있는 일련의 주(州)들에서 평년 대비 가장 선선한 날씨가 발생했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 (11/16~11/22)

나라의 대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기온이 기록되었다. 평원, 로키 산맥, 남서부 및 텍사스 서부의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9° F 이상의 기온이 눈에 띄었다. 나라 대부분이 평년보다 건조했지만 미시시피 계곡 중부, 오하이오 계곡, 평원 중앙, 태평양 북서부 및 로키 산맥 북부는 물론이고, 캘리포니아 북부와 플로리다 해안 일부에서 평년 이상의 강수가 관측되었다. 워싱턴 일부에는 주중에 최소 4인치의 비가 내렸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11/15~11/21)

■ 유럽: 남서부 및 남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상태가 주목할만하게 건조했지만,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는 따뜻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우세했다.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동유럽 대부분까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의 요란이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 (1~20 mm)를 광범위하게 발생시켜서 계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추가 겨울 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분을 대체로 양호하게 공급해주었다. 하지만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는 물론이고 아일랜드에서 핀란드까지 서쪽에 접하고 있는 곳들에 비가 더 강하게 내렸다 (10~90 mm, 지역적으로 더 많이). 반대로, 그리스 및 그곳에 바로 인접한 곳은 물론이고 스페인 중부 및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보고되었다. 이 기간 중 평균 기온은, 평년에 가까웠던 유럽 남동부 일부를 제외하고, 평년보다 2~7° C 높았는데 7일 평균 기온이 5° C 이상이라는 것은 겨울 작물들이 아직 휴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; 독일 북부에서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까지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은 일반적으로 11월 중순부터 하순에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. 헝가리 서부에서 남쪽으로 에게해 해안까지 국지적인 단기 건조 (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% 미만)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겨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내용없음

■ 동아시아: 내용없음

■ 호주: 최근 축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서호주에서 보다 건조한 날씨가 확산되면서 겨울 작물 수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국지성 소나기 (5~10 mm)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이 계속 미뤄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밀, 보리 및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을 도왔다. 호주의 다른 곳은, 북동부에서 일부 산발적인 소나기 (1~10 mm)가 보고되기는 했지만, 남부와 동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을 중단없이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만숙 겨울 작물들이 익는 것을 도왔다. 그러나, 여름 작물의 발아와 출현이 더 촉진되어야 하는 동부는 더 많은 비와 다소 더 선선한 날씨를 바랄 것이다. 남부와 동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~5° C 높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낮은 40도대 (섭씨)에 도달했다.



■ 아르헨티나: 아르헨티나에서 더 북쪽에 위치한 농업 지역에 소나기가 퍼져서 여름 작물들과 지역적으로는 미숙한 겨울 곡류의 발아에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. 코르도바 남부에서 북쪽으로 살타와 포르모사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~25 mm였다; 건조 때문에 면화 파종이 다소 지체되었던 차코와 그 주변에 아주 때맞춰 비가 내렸다. 엔트레 리오스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전에 유리한 강우의 혜택을 받았던 더 남쪽에 있는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밀 지역 남부는 다시 더 건조해졌다. 지역 전체에 걸쳐서 결빙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과 가깝거나 다소 낮았다;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높은 20도대 및 낮은 30도대 (섭씨)에서 살타, 포르모사, 및 기타 북부 농업 지역의 40° C에 가까운 수치까지 다양했다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9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46% 및 32% 파종되었다. 해바라기는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앞서서 95% 파종되었다; 대조적으로 면화는 작년의 55% 대비 26% 파종되었다. 한편, 밀은 17% 수확되어 작년과 같았는데 대부분 북부 생산 지역에서 야외 작업이 이루어졌다; 코르도바의 밀은 대체로 종실비대 및 성숙기 중에 있었고 최근의 수분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

■ 브라질: 지속적인 건조 포켓 때문에 발달 중인 여름 작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는 하지만, 브라질 중부, 남부 및 북동부에 있는 농업 지역 전체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다. 특히 우려되는 곳은 마토 그로소에서 리오 그란테 도 술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이었는데 25 mm를 넘었다는 몇 건의 보고를 제외하면, 그 가운데서 많은 곳에 내린 비는 총 10 mm 미만에 불과했다. 지금까지 재배 중에 내린 이 지역의 계절성 소나기는 특별할 것도 없이 드물었는데 현재의 양호한 작물 전망을 보장하려면 비가 필요하다.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대두 파종이 사실상 끝났다 (98%). 한편, 11월 16일 현재 파라나에는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98% 및 92% 파종되었는데 일찍 심은 작물들은 현재 생식 중에 있다; 밀 수확은 99%로 사실상 끝났다. 리오 그란테 도 술에서는 11월 19일 현재 밀이 97%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고 한편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80% 및 35% 파종되었으며 출현된 옥수수 작물 중에서 37%가 생식기 및 종실 비대기 중에 있었다. 건조가 브라질 남부와 서중부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동부에는 잠깐의 휴지기 이후에 다시 유익한 비 (10~50 mm, 지역적으로 더 많이)가 내려서 고이아스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바히아 서부 전체와 마란하오까지 대두와 옥수수를 위해서 대체로 양호한 조건이 유지되었다. 그 비는 남쪽으로 상 파울로의 사탕수수 및 커피 지역과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로 확장되었다. 앞서 언급된 농경지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~2° C 높았다; 파라나 서부에서 북쪽으로 낮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대 (섭씨)에 이르면서 이미 낮은 수준의 토양 수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의 수분 요구량은 높이 유지되었다.